

삭감예산 재편성·국비확보 '도마위'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대수도론 관련 적극 대응 촉구

20일 열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용)에서는 대구시의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문제와 국비확보 실태, 공공기관 이전 준비에 대비한 예산 운용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서울 경기의 대수도론과 관련해, 대구시의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경호의원=시비를 확보하고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얼마나 되나. 추경예산안도 제출돼 심의하고 있다. 집행부도 많이 바뀐 것 같다. 새로운 마음으로 국비를 싸워서라도 확보

해 주길 바란다. 적극적으로 국비를 챙겨달라.



▲권기일의원=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예산과 조직운영은 어떻게 돼가고 있다. 또 이전과 관련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대수도론과 관련, 수도권은 뭉쳐서 행동을 하고 있으

며 곧 토론회도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구시에서 누가 참석하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참석할지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 대응이 늦다. 구체적

으로 대수도론에 어떻게 대응할지 말해 달라.

또 대구의 안전문제다. 보이는 곳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지하시설물)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설물들을 진단해 봐야 할 것이다.



▲전성배의원=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보증 재단을 통해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재단 출연금이 745억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신용보증 대출을 해 준 뒤 사고 가능성은 없다. 사고가 난 뒤 대위변제해 주고 있는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나 그래도 금액은 많다. 대위변제에 따른 안전장치는 있다.



▲박부회의원=의회에서 감액시킨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경위를 설명해 달라. 행사지원등 민간경상경비 보조는 낭비요인이

있다. 꼭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가.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